

롤즈 정의론과 한국사회 *

장동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론

롤즈의 정의관은 『정의론』(1971)¹⁾ 출간된 이후 약 반년쯤 지나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특정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 사이에 읽히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지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렀다.¹⁾

이러한 도입과정은 대체로 3단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롤즈 정의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단계는 대략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

* 이 논문은 일본 오카야마(岡山) 대학교 대학원 사회문화과학연구과와 법학부가 공동 주최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다문화공생(Multicultural Cooperation in East Asia: Justice, Disparity, and the Rule of Law)」(오카야마 대학교 사회문화과학계총합연구동 2층 공동연구실, 2008년 2월 10일)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1) 롤즈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¹⁾이 도입되는 경위와 번역과정에 관하여,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서광사, 1985), pp.7-8을 참조하라. 한국에서 A Theory of Justice은 황경식 교수에 의해 『사회정의론』으로 제1부 원리론이 번역되어 1977년에 출판되었다.

쳐 1990년대 초반에까지 이른다. 그 다음의 단계는 롤즈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한국에서 대략 1990년대에 걸쳐 진행된다. 비판의 내용은 롤즈 이론 자체의 내적 문제점과 함께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후자의 비판적 겸토는 1980년대에 서구에서 진행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판적 단계는 다음의 좀 더 적극적인 비판을 토대로 한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²⁾의 단계로 진입한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롤즈 정의관을 통해 한국적 현실을 비판해 보는 것과 동시에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정의관에 비추어 롤즈 정의관을 반성적으로 비판해 보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동아시적 정의관 또는 한국적 정의관을 모색하려는 적극적 시도들이 나타난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이론적 수용과정은 현재 세 번째 단계인 반성적 평형의 단계에 진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³⁾

이와 같은 롤즈 정의관의 한국적 이해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이론

2) 롤즈의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의 개념에 관하여,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20, pp.48-50를 참조하라. 이 글에서 반성적 평형의 개념은 새로운 정의관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정의관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적 겸토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3) 이러한 3단계의 수용과정은 엄격한 시간적 구분보다는 수용과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구분된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단계의 특징인 적극적 이해, 비판적 겸토, 대안적 정치관의 모색 노력 등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 흐름을 볼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된다. 롤즈 정의론의 3단계 수용과정에 관한 필자의 입장에 대하여, 장동진, 「서양 정의이론의 동아시아 수용: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 『정치사상연구』, 제12집 2호(2006년 가을), pp.80-100을 참조하라. 현재 한국에는 롤즈의 저서인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1999), *Political Liberalism*(1993), *The Law of Peoples*(1999)가 각각 『정의론』(2003), 『정치적 자유주의』(1998), 『민민법』(2000)으로 번역되어 있다.

적 이해와 비판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한국정치나 민주화 과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현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시작된 현대 한국의 기본적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이후 여러 차례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자유민주정체라는 기본적 이념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한국의 자유민주정치 이념은 룰즈의 정의론이 배경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자유민주사회와 깊은 이론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루즈 정의론이 이론적으로 한국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면에서 한국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가능한 설명의 하나로는, 룰즈 정의론이 지니는 고도의 정치철학적 추상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1970년대 초 한국에 처음 도입되긴 했지만, 거의 199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논의는 매우 제한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룰즈 정의론은 그 정치철학적인 추상성으로 인해 이론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나 정책 실무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실천화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룰즈 정의관의 정치 철학적 성격으로 인해 실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정치운영에 도입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논의는 대학 강의를 통하여 과거보다는 많이 일반화되고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음은 물론 룰즈 정의관의 긍정성 및 부정성을 한국적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인적 범위도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실천적 긍정성에

대한 입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한국적 인식과 문화구조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 좀 더 근본적으로 룰즈의 정의론이 한국 민주화에 실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아마도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한국적 인식 및 가치관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던져 주는 시사점과 다른 한편 한국사회의 고유한 성격에 입각하여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실천적 및 이론적 의미에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룰즈 정의론과 한국사회

루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들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과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1993), 『만민법(The Law of Peoples)』(1999)을 통하여 제시된다. 이 세 저서에 나타난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전체적인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인식과 그 내용의 강조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우선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민주社会의 내부에 적용되는 정의원칙을 도출하는 데 비해, 『만민법』은 국제사회의 정의 문제를 다룬다는 데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물론 이 세 저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정의원칙을 도출하는 절차적 조건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채택은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의 문제인식과 이와 관련한 원초적 입장의 적용 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의론』은 인간 개개인의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일

부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다수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더 큰 사회적 이득을 이유로 희생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⁴⁾ 이러한 문제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롤즈는 원초적 입장과 최소극대화 규칙(maximin rule)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two principles of justice)⁵⁾을 제시한다. 특히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핵심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있다. 이것의 핵심은 정의원칙에 대한 합의의 공정한 조건으로서 합의의 당사자는 자신의 타고난 자산과 능력, 가치관 및 심리적 경향,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것으로 가정한다.⁶⁾ 『정의론』에 나타난 중요한 문제인식 중 하나는 자연적 및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⁷⁾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 제2원칙의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과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하여 제1원칙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장치가 된다. 『정의론』에 나타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평등하게 실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99년 개정판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a property-owning democracy)의 개념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이 발상은 개인적 재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보장을 하고 경쟁적 시장 체제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성격을 지닌 부와 자본을 사전적으로 광

4)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1971), pp.3-4.

5) 같은 책, p.60. "First: each person is to have an equal right to the most extensive basic liberty compatible with a similar liberty for others. Second: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both (a) reasonably expected to be to everyone's advantage, and (b) attached to positions and offices open to all."

6) 같은 책, p.12, pp.136-142.

7) 같은 책, pp.72-75.

범위하게 분산할 수 있는 공정한 협력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사후적 조정을 통해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 대조되는 일종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a liberal socialist system)라 할 수 있다.⁸⁾

한편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인식은 『정의론』과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심각하게 분열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에,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당 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⁹⁾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정의론』에서는 불분명하였던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도덕적인 것과 구분되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the domain of the political)'을 설정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문제인식은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 간의 합당한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사회의 정치적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구성주의(polynomial constructivism), 합당성(the reasonable), 공적 이성(public reason),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개념이 대두된다. 그렇지만 원초적 입장은 대표의 장치(device of representation)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의의 두 원칙은 약간 변형되어 표현되었지만,¹⁰⁾ 근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8)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1999), pp.xiv-xv.

9)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4.

10) 같은 책, pp.5-6. "a. Each person has an equal claim to a fully adequate scheme of equal basic rights and liberties, which scheme is compatible with the same scheme for all; and in this scheme the equal political liberties, and only those liberties, are to be guaranteed their fair value. b.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satisfy two conditions: first, they are to be attached to positions and offices open to all under conditions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second, they are to be to the greatest benefit of the least ad-

롤즈의 『만민법』은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제시된 자신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국제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를 합당한 자유적 국민(reasonable liberal peoples), 적정수준의 국민(decent peoples), 무법국가(outlaw states), 불리한 여건의 사회(societies burdened by unfavorable conditions), 자애적 절대주의 체제(benevolent absolutisms)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상적 이론(ideal theory)과 비이상적 이론(non-ideal theory)을 제시한다. 특히 자유적 국민 상호간의 정의원칙 합의에 관해서는 이상적 이론의 제1부, 자유적 국민의 정의원칙이 관용을 통해 적정수준의 국민에 확장되는 과정은 이상적 이론의 제2부를 통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원초적 입장의 장치가 활용되고 공적 이성의 역할이 강조된다. 한편 비이상적 이론에서 무법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 질서정연한 국민(well-ordered peoples)의 방어전쟁권을 논하는 불순응이론(non-compliance theory)과 불리한 여건의 사회에 대한 원조의 의무(duty of assistance)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 있다.¹¹⁾

이와 같이 간략히 정리되는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한국사회에 깊은 함의를 지닌다. 우선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제시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현재 한국사회의 운영에 깊은 실천적 함의를 내포한다. 한편, 『만민법』을 통해 제시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정의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와 깊은 관련을 지닌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성격을 진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가능하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그만큼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성격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끊

vantaged members of society.”

11) 좀 더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를 참조하라.

임없이 변화해 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성격을 현 시점에서 파악하고 규정한다는 것 역시 잠정적 성격을 떠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의 성격은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은 한국사회의 제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필자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사회경제적 관점, 다문화적 관점, 신념의 다양화, 민족주의, 여성주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롤즈 정의관과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롤즈의 정의관에 나타난 주요 개념 및 원칙들을 현 한국사회의 성격과 결부시켜 논의하여 보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와 원칙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롤즈 정의관이 지니는 문제점 및 한계 역시 노정될 것이다.

우선 한국사회의 성격을 사회경제적 관점을 통해 접근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흔히 가진 자/못 가진 자, 자본/노동 등의 구분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격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혜택 받는 계층(the more-advantaged group)과 혜택 받지 못하는 계층(the less-advantaged group)을 대비시켜, 이 양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부는 물론 기본적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구조적 불평등론을 제기한다. 대립되는 이 두 집단은 각각 한국사회의 정의 문제에 대해 상이한 기대와 요구를 할 것이다.

우선 한국사회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조망하였을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 등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표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지적되는 ‘양극화’ 현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잠재적 갈등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양극화 현상은 각 사회가 직면한 금세기의 일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소득의 격차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차원, 성취동기와 관련된 의식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대립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¹²⁾ 이와 함께

노동과 자본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각종 시위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롤즈『정의론』의 정의의 두 원칙 중 제2원칙의 하나인 차등의 원칙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계층의 최대이익을 가져올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평등주의적 원칙이다.¹³⁾ 이러한 근본 원칙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 합의에서는 많은 문제를 노정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차등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의 무지의 베일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원칙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배문제에 대한 현실적 합의에서는 각자는 자신의 입장은 전제로 하여 출발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사회에서만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무지의 베일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 수혜자 계층은 분명 롤즈의 차등의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더 유리한 수혜자 계층은 자유경쟁적 분배체제나 아니면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최저한의 사회적 보장(the guaranteed minimum)을 조건으로 하는 자유로운 경쟁적 분배체제를 선호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지의 베일의 원래의 의미는 각자의 입장을 떠나 더 공정한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여 어느 입장이 더 합당성을 지니는가에 의해 그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느 입장이 더 타당한가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하는 기본적 원칙에 대하여 더 평등주의적인 차등의 원칙의 발상과 더 자유경쟁에 입각한 분배원칙 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12)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진단과 전망」,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인간사랑, 2007), pp.330-331.

13)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1971), p.83.

다.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의 분배원칙은 더 평등주의적 기조로 기울어졌다고 평가되며, 최근에 진전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후자의 해결방향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인종·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조망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인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은 ‘단일 언어와 문화에 기반한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왔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신화를 깨트리고 있다. 최근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 등은 한국사회가 단일문화와 단일민족에서 점차 다문화화 및 다민족화되어 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권리보호 문제가 한국사회에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된다.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칙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특정 정치사회의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의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논의는 다시 결혼 및 기타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시민과 불법 이주노동자와 같이 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취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불법 이주노동자와 같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취득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롤즈 정의론의 제1원칙이 제시하는 기본권 보장은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권 없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시민의 권리로서보다는 인간으로서 지니는 보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권(human rights)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¹⁴⁾ 이것은 롤즈가 『만민법』을 통해 제시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사회 정의관에서 인권의 보호 문제에 해당된다. 롤즈 『만민법』은 인권을 국제사회에 적용될 보편적 개념으로 간주하지만 최소한의 개념

14) 장동진·황민혁,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민족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통한 포용 가능성과 한계」,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7집 3호(2007), pp.240-252.

으로 규정한다. 룰즈가 제시하는 국제사회에 통용될 인권의 내용은 생명권(생존과 안전), 자유권(노예, 농노 및 강제적 점령으로부터의 자유,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조처), 개인적 재산권(the right to personal property), 자연적 정의의 원칙(the rules of natural justice)으로 표현되는 형식적 평등(예를 들어,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포함한다.¹⁵⁾ 현재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 국적 없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이러한 인권의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룰즈의 인권 개념은 한국사회가 노동 및 기타의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적 및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처우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¹⁶⁾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기존의 한국 국민과 같이 룰즈의 정의 제1원칙에 의한 기본적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및 이들의 자녀들은 언어 및 문화의 장벽으로 인하여 기본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¹⁷⁾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더 적극적인 배려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상 문화 및 언어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룰즈의 정의론 내에서 심각하

15)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1999), p.65.

16) 한국에서 1990-2005년의 16년간 국제결혼 건수는 240,755건이다.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42명이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80,813명이다.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06), p.vi.

17) 다문화주의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로,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327-376;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Oxford: Clarendon Press, 1995)를 참조하라.

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다.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룰즈의 정의관보다는 다문화주의의 이론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변화의 하나는 다양한 신념 및 관점의 등장이다. 최근 한국에는 동성애자의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소수자의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소수자의 권리 주장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하나의 측면은 룰즈의 정의관이 자유와 권리를 지닌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성립하고 있으므로, 특정 인종 및 문화 집단 또는 소수 집단이 요구하는 차별적 권리(differentiated rights)로 표현되는 집단적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적 권리 주장은 다문화주의나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의 주장과 관련성을 지닌다.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한국에서의 소수자의 권리 주장의 등장은 룰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언급한 ‘합당한 다원주의 현실(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로 인한 ‘합당한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¹⁸⁾가 한국사회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초기적 징후로 파악할 수 있다. 룰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나누어진 화해 불가능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이러한 교리들이 지지할 수 있는 공적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룰즈는 이러한 합당한 다원주의 현실을 자유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치문화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룰즈의 문제인식은 한국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겪게 될 현실로 여겨진다. 따라서 룰즈가 제시하는 표현의 장치(device of representation)로서 원초적 입장의 핵심인 무지의 베일의 제약은 각각의 교리 및 신념의 극단적인 주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합당성(the reasonable)의 능력과 공적 이성(public reason-

18)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1993), p.36, p.55.

son)의 활용을 통해 교리 및 신념 간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의 지향은 매우 실용주의적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각각의 교리 및 신념이 지니는 도덕적 타당성보다는 한국의 현실적 여건에서 어떤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더 정치적 타당성을 지닐 것인가 하는 문제인식은 현재의 한국사회의 제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의 관점은 여성주의(feminism)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진단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공적 및 비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녀불평등 문제를 통해 한국사회를 해부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여전히 공적 및 비공적 영역에서 남성지배적 현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내의 구조, 사회 일반의 관행, 그리고 국가 및 정부의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의 수와 그들이 위치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하여 본다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녀불평등의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정의관에 의하면, 남녀불평등 문제는 정의의 두 원칙 아래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각 개인에게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고(제1원칙), 그리고 이를 사회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제2원칙)을 보장함으로써 남녀 모두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평등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많은 이론가들이 지적하듯이, 사실상 현실적인 남녀불평등을 고착시킬 여지가 있다. 즉 설사 공식적 정의원칙은 남녀평등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공적 및 비공적 영역에서 남아 있는 여러 가지의 관행과 기준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¹⁹⁾ 한국사회의 각종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19) 이러한 공식적 남녀평등과 실질적 남녀불평등 문제의 딜레마에 관한 설명으로,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2002), pp.378-398을 참조하라.

진출과 활약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기준, 문화 및 논리는 남성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을 지배하는 것 역시 남성 중심적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내의 문화 역시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적 영역으로서 정치적인 영역과 비공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나누어 헌법적 본질과 같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운영하는 정의원칙을 도출하여 한다. 그렇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남성 중심적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을 때에는, 롤즈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남녀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조망하여 롤즈 정의관과 결부시켜 논의할 수 있다. 한국인은 단일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단일민족을 중심으로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에는 단일 언어, 단일문화, 단일민족이 중심 개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최근에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약간의 변화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배적인 민족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한민족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조사대상 1,038명 중 28.1%가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²⁰⁾ 이것은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여전히 혈연적 동질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민족의식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적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정치이론, 좀 더 구체적으로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민족인식에 기반한 한국인의 민

20)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강원택 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나남출판, 2007), p.26.

족적 정체성이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후자의 가치는 전자의 가치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후자의 가치가 전자의 가치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전자의 가치는 후자의 가치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논의와 연관된다.²¹⁾

한국인의 단일민족 의식은 롤즈 정의관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하나의 방향은 하나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자유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은 정치공동체에 대한 우선적 가치를 구성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롤즈 정의관과 관련하여, 다시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헌신을 중심적 가치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민족인식은 한국의 공동선에 대한 우선적 헌신을 요구하고 동시에 공사 영역에서 한국인 상호간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의 의무를 권장한다. 즉 이러한 감각은 롤즈의 자유적 평등주의(liberal equality)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적 유대감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민족적 공동선에 대한 헌신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 공동체의 융성과 발전에 더比重을 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요구는, 현재의 한국정치가 사회 제반 영역에서 자유경쟁체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경쟁이 민족 전체의 안정성과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평등주의적 기조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롤즈의 정의 1원칙에서 열거되고 있는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21) 타미르는 “나는 나의 민족적 소속감보다 자유주의적 신념을 더 선호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한다. Yael Tamir, *Liberal Nationalism*(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5.

한국민 전체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하나의 방향의 논의는 수용(inclusion)과 배제(exclusion)와 관련된 문제다. 한국인의 공통의 역사와 문화 및 언어에 기반한 단일민족 의식은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집단적 결속력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배타성 및 획일성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함유한다.²²⁾ 그러나 이러한 단일민족 의식은 앞에서 논의한 최근 한국에 새로이 유입되고 있는 언어, 문화, 인종을 달리하는 시민의 증가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다. 단일민족 의식은 이러한 새로이 유입되는 한국인에 대하여 사회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배제의 형태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롤즈 정의관이 정의 제1원칙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성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의 현실적 관행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민족의식과 관계되고 동시에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관계되는 것이 한국의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롤즈는 『만민법』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정의관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만민법』의 비이상적 이론에서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무법국가(outlaw state)에 대하여 질서정연한 국민(well-ordered peoples)의 자기방어의 전쟁권을 논하고, 불리한 여건의 사회(societies burdened by unfavorable conditions)에 대하여 원조의 의무(duty of assistance)²³⁾를 논한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국제정의관에 비추어 본

22) 김광억, 「한국문화론의 정치인류학적 단면: ‘세계화’와 ‘신토불이’ 사이에서」, 김정오 외,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글로벌 표준의 수용』(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122-124.

23) 롤즈의 원조의 의무(duty of assistance)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적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원조의 의무가 끝나는 중단점(cutoff point)이 있는 것으로, 롤즈의 국내사회에 적용되는 평등주의적인 차등의 원칙과 구분된다. 차등의 원칙은 자유적 사회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정의원칙으로 중단점이 없다. 상세한 논의로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1999), pp.105-120 참조.

다면,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자유적 사회(non-liberal society)로 보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정치체제를 무법국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여건의 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본적 인권이 위반 또는 제약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법국가적 성격을 지닌다.²⁴⁾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발전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불리한 여건의 사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무법국가적 성격과 불리한 여건의 사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적 성격의 사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남한의 국민은 북한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하나의 입장은, 롤즈의 국제정의관에서 강조되듯이 인권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더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즉 북한체제의 무법 국가적 성격의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체제의 성격을 자유민주적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지원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북한의 불리한 여건의 사회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사회가 스스로 적정수준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조하게 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한국 내의 진보/보수 논쟁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보수적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반면, 진보적 입장은 자유민주적 가치보다는 민족의 가치에 우선을 두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물론 북한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북한 정치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한다.²⁵⁾ 이것 역시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

24)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하여서는, 통일연구원, 『2007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2007)를 참조하라.

25)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Bo-hyuk Suh, "Controversies o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South Korean Society", *Asian Perspective*, vol. 31, no. 2(2007), pp.23-46을 참조하라.

족적 가치 간의 갈등이 현실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제시되는 롤즈의 국내사회를 위한 정의관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비자유적 절대주의 체제로 그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를 다원 주의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롤즈의 국제사회 정의관에 의하면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롤즈는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다섯 가지 국민 또는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상이한 정치문화를 지닌 국민들의 상호간의 관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그 조건은 인권의 준수 여부에 있다. 롤즈의 국제사회관은 독특한 정치문화를 지닌 국민의 집단적 자율권(collective autonomy)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적정수준의 사회를 포함하여 비자유적 사회의 집단적 자율권은 구성원의 개인적 자율권(individual autonomy)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때, 롤즈의 자유주의적 국제사회 정의관은 집단적 자율권과 개인적 자율권의 갈등에 대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 자율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관용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북한과 같은 무법국가적 성격과 불리한 여건의 사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정치사회에 대하여 롤즈 정의관은 집단적 자율권과 개인적 자율권의 갈등에 대한 해결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적 관점에 본 롤즈 정의론

이상에서 롤즈의 정의관을 한국사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으며, 한국사회 자체의 문제점과 롤즈 정의관의 한계를 동시에 조망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논쟁은 아마도 롤즈 정의관과 한국사회에 묵시적으로 내재해 있는 한국적 정의

관을 대비시켜 논의해 보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서론에서 밝힌 룰즈 정의론의 한국적 수용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반성적 평형의 단계에 해당되는 논의다.

이러한 단계의 논의는, 좀 더 근본적으로, 서구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또는 동양적 가치)가 혼재된 현재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성격과 연관된다. 서구적 가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으로 집약된다. 한국사회 역시 사회 제반 영역(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서 개인의 가치가 내재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콩스탕이 현대인의 자유(the liberty of the moderns)로 표현하는 개인적 독립성과 개인적 즐거움 및 행복추구의 자유라 할 수 있다.²⁶⁾ 이것을 현대적 가치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 역시 이미 한국사회에 깊이 내재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사회의 성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가치는 현대 자유민주사회가 지니는 더 일반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한국적 가치(또는 동양적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족적 유대감 및 공동체의 소속감, 인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의 중시 등이 한국인의 생활 곳곳에 깊이 뿐리박혀 있다. 아마도 현대 한국인의 생활을 지배하는 논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식보다는 이러한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는 가족의식, 동

26) Benjamin Constant, "The Liberty of the Ancients Compared with That of the Moderns", Benjamin Constant, *Political Writings*, ed. Biancamaria Fonta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309-328.

27) 동양인과 서양인은 자기 개념을 포함한 성격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기억, 판단 및 언어 등과 같은 인지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을 포함하여 동양인들은 상호 의존적인 자기 개념을, 미국인을 포함해서 서양인들은 독립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상호 의존적 자기 개념에 관하여 김정오, 「한국인의 정체성: 상호 의존적 자기 개념」, 김정오 외,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글로벌 표준의 수용』(서울

창의식 또는 동문의식, 지역의식, 민족의식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함께하는 태생적 의식'은 한국사회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마찰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와 한국의 생활전통에서 오는 한국적인 상호 의존적 가치는 한국사회의 운영기반이 되는 정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요구할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 살아 있는 전통적인 한국적 가치로 가족의식과 공동체의 소속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은 한국사회를 이미 형성된 정치공동체로 간주한다. 이것은 물론 한국사회의 소속감이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족적 소속감이 개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동등한 비중으로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민족적 가치를 자유주의적인 개인적 가치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또는 민족적 의식은 공동체나 민족적 귀속감이 개인적 가치의 일부라기보다는 공동체 자체가 지니는 공동선의 의미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정치사회를 계약의 산물로 간주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식과는 상반된다.

한국적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가 있기에 개인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또한 한국적 전통, 언어, 문화는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이라는 독특한 정치공동체가 독특한 문화, 전통, 언어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선이 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을 일차

대학교 출판부, 2006), pp.27-77을 참조하라.

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현대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율성 및 독립성, 그리고 개인적 즐거움과 행복의 추구의 자유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민족적 의식은 한국이라는 민족적 정치공동체를 넘어 인권과 같은 세계시민적 가치의 실현을 요구하는 세계시민주의적 입장과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개척할지는 미래의 과제로 남는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가능한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의 방향은 한국인의 상호 의존적 인간관이 표현된 가족의식, 공동체 및 민족적 의식 내에서 배타보다는 포용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인권과 같은 세계시민주의적 가치나 개인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개념을 통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더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다.

한국적 정의관에서 볼 때, 룰즈의 정치적 정의관의 중심을 이루는 공적 정의관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룰즈의 정의관은 정의 또는 정의원칙을 계약이나 합의 또는 구성의 산물로 이해한다. 이렇게 형성된 정의원칙은 공적인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 된다. 한편 한국인의 정의관은 이러한 공적 정의관보다는 더 광범위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원칙을 정의로 간주하는 보편적 정의관 또는 자연적 정의관(natural justice)²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것의 근본적 바탕은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규범과 정의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은 더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룰즈의 정치적 정의관이 시민사회의 포괄적 교리들 간의 합당한 불일치를 조율할 수 있는 공적 정의라 한다면, 한국사회의 일반

28) 룰즈는 『만민법』에서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처리되어야 한다.”의 원칙과 같은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개념을 제시하지만,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1999), p.65.

인들에 내재해 있는 정의관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적 정의관으로서, 룰즈의 공적 정의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4. 결론

룰즈 정의론이 비록 한국의 민주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자유민주화의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동시에 서구의 자유민주적 전통과 역사를 배경으로 성립한 룰즈의 정의론은 비자유적 전통의 가치를 충분히 수용해 낼 수 없는 이론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룰즈 정의관의 중심 내용은 그의 정의 제1원칙을 통해 제시되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 원칙은 아직까지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미흡한 한국적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물론 한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선의 실현과 어떻게 조화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둔다. 또한 룰즈의 정의의 제2원칙의 핵심인 차등원칙은 현재 양극화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 많은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나아가서 룰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다문화화, 다인종화, 다언어화 되어 가는 한국적 현실에서 더 적극적인 해결의 원칙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문화화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신념 및 가치관의 등장으로 인한 합당한 불일치의 대두, 남녀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룰즈의 원초적 입장의 장치, 합당성 및 공적 이성의 개념은 한국사회가 직면할 갈등을 해결하고 정치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또한 한국인의 민족의식

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요구하고, 남북문제 해결 및 통일지향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 간의 갈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본적 틀을 제공해 준다.

전체적으로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관은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libertarianism)보다는 비교적 한국인의 평등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의식과 부합한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상이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한국인의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은 상호 의존적 관계의 인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한국인은 이미 한국의 문화와 전통 속에 상호간 의존적 관계에 진입하여 유기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롤즈의 정의론은 한국인의 가족의식, 공동체 유대의식, 민족의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비자유주의적 관행들을 비판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보았을 때,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한국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가족의식, 공동체 의식 및 민족의식과 끊임없는 갈등의 관계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가치가 가족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및 민족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 어느 정도로 그 비중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가족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민족적 가치가 자유주의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 그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반성적 평형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